

# 행복한 청지기

신명기 33:29

황관주 목사님

내가 의정부에서 왔는데, 강남에서 살다가 망하면 강북으로 오고, 강북에서 망하면 오는 시골 동네가 의정부 아닌가. 그런 곳에서 목회를 작게 하고 있는데, 하필 강남에, 그것도 최정웅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 달라고 하니, 오금이 떨리고 밥도 넘여가지 않았다. (웃음) 사실 나는 항상 감사하고 있다. 지난 총회 할 때도 보니까, 물론 총회장님도 훌륭하지만, 개혁총회가 어려운 중에 있지 않나? 그런데 최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복잡한 문제를 풀아가시는 것을 보는데, 너무 감사했다. 우리 교단의 귀한 어른이시고, 마음으로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서 마음이 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 정운돈 목사님께서, 램넛 사역에 대해 장로님들과 청지기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해서,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나누면서, 양생시 많고 흑암 혼돈 공허 가득한 의정부 시골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만난 분 중에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 있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전도를 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신 분이였다. 이분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했다. 평양에서 일남하신 분들만 교회에 앉아있고, 후대 주일학생들이 없어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암울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교회처럼 자기 교회가 될 것을 보니까 늘 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고 하셨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다락방의 모델적인 교회이고, 부총회장님 목사님과 함께 정운돈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다. 정목사님은 지금 우리 집사람과 함께 자살방지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다락방 안의 중요한 복지 사역을 다 하고 계신다. 너무 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참사랑교회의 존재만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워낙 강남에 사시니까 잘 모르실텐데, 의정부 시골에 와 보셔야 ‘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구나’ 싶을 것이다. (웃음) 찬양대실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성악가들만 모인 줄 알았다. 영빨과 테크닉이 장난이 아니다. (웃음) 살짝 지나가는데도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가 보이지 않게, 지역과 세계 복음화, 후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앞으로 더욱 재창조의 역사와 응답을 주실 것이다.

## 1. 간증

나는 사실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나는 원래 몸이 굉장히 약했다. 매일 해매는 가냘픈 사람이었다. 찬바람만 불면 감기에 걸리고, 안 아픈 데가 없는 약한 사람이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얻어터져서, 신학 공부를 안 하면 뒤진다 하셔서, (웃음) 한 것이었다. 나는 원래 수준 높은 교회, 필동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큰 교회 후계자로 세워주신다 했지만,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마침 집사람이 의정부 금오여중의 교사가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 의정부가 발전할 것이라고 그러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30만 원이었는데, 분당이나 광명에서는 개척을 할 수가 없었다. (웃음) 그래서 의정부에서 지하에 개척을 한 것이다. 월세 15만 원이었는데 지하인데다 위에 화장실에서 물이 계속 세서, (웃음) 아파트 사는 분들은 왔다가도 다 도망가더라. (웃음) 우리 오국환 장로님 누님이신 분이 우리 집사람과 같은 학교 연구부 선생님이었는데, 개척을 하는데 사람이 없다 해서, 감바 싸는 것이라도 도와주겠다 하고 오신 것이다. 이분이 굉장히 사표한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은 없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지.” 너무 불쌍하니까, 구제하는 심령으로 와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 2년 정도,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 이니까 아이들이 한 10여 명 오더라.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면서 갈 나와라 총 나와라 하고 설교를 하는데, 2년 하니까 더 못 하겠다. 모인 30, 40 명이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국수 삶는 것 가지고도 싸우고 시비를 하는 것이다. 하 집사람이라는 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왜 안 나오느냐 했더니, “전도사님, 저는 이 교회 안 나오기로 작정했어요.” 역장이 무너지더라. 그러지 않아도 신학공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웃음) 그래서 당시에 기도를 많이 했다. 산기도를 10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장풍 나오지는 않았다. (웃음) 그렇게 기도 했어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집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 하니까, 목회에 큰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였다. 친구들이 이야기하기에, 다락방 세미나를 가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강대상까지 올라와 앉아있는 것을 보는데, 처음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아, 내가 복음의 가장 핵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 가슴에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구나. 지식일 뿐이었구나.’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결단하고 혼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안 된다 하는 절망 속에서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는데, 의정부에서는 내가 처음 깃발을 들었다. 94년 8월 24일에 의정부 전도학교를 우리교회에서 시작하는데, 한 주간 금식하며 시작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깃발을 드니까 600명, 700 명이 모여왔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10여 명의 목사님이 남아서 같이 복음운동을 하고 있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계속 이 속에 붙어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사실 나는 불량품이다. 영접도 잘 못 시켰다. 청소년수련회 때 메시지 들었던 사람들은 알 것이다. 광주대학에 들어가서 영접운동 캠프를 하는데, 집회 따라다니지 1년 쯤 될 때였다. 워낙 흑암, 혼돈, 공허에 찌들어 있었는데, 대학사역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소경하게 메시지를 하는지, 대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잔디밭에 무릎꿇고 영접하는 것이다. 들어보니 기본메시지 간단히 하는데 다 영접하는 것이다. 안양의 황선권 목사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인데, (웃음) 아이들을 불러서, “야, 거기 너 이리와!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웃음) 그리스도 알아?” “모르는데요.” “아니, 무슨 최고의 상아탑 대학생이 그리스도를 몰라?” 이러면서 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을 하겠다는 것이다. 5분 만에 소부를 봤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깨너머로 보다가 나도 한 명을 붙잡았다. “학생, 그리스도 아는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들겠는가?” 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따로 앉혀서 근본문제 세 가지를 조곤조곤 자근자근 설명했다. 얼마나 했나? 한 시간 10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했더니, “아저씨, 무슨 이야기 하겠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웃음) 도망가는 것이다. 1년 했는데도 영접도 못 시킨다. 살아서 뭐 하나 싶었다. ‘야, 너 차라리 죽어라.’ 광주대학 강당 위에 올라가서 울었다. 진짜 울었다. “하나님, 나 같은 불량품, 살아서 뭘 합니까.” 1년 10개월을 따라다녔는데도 정립이 안 되니까. “그래도 죽지는 마라. 트라이 어게인, 다시 시작해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대학생은 수준 높아서 안 되니까 하이스쿨로 가자 해서 갔는데 붙잡고 했더니 오줌 마르다고 도망간다. (웃음) 주니어로 내려가자 해서 중학생 만났더니 학원 간다고 도망간다. (웃음)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다. 미끄럼틀 타는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절에 다니는데,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더라. (웃음) 그때 깨달았다. ‘아, 내가 안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복음메시지를 듣고, 녹취하고, 성경을 찾아보았다. 수년 동안 기본 메시지를 하하지 않았나? 불신자 상태와 복음메시지였다. 이것을 계속했다. 1년 이 더 지났다. 창원대학교에 가서 이공대 다니는 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30분 동안 전했더니 눈물로 영접했다. 이게 처음이었다. 아직도 잊지 못한다. 지식적인 그리스도도가 아니었다. 창3장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그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붙이시기 시작했다. 학교마다 교사 다락방이 열리면서,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난다. 오늘 미국으로 유학가는 램넛트가 있는데, 이 아이는 가정이 깨져서 공부할 이유도 없고 자살하기 직전이었다. 그랬던 아이를 우리 선생님이 만난 것이다. 1년을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1년이 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했더니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아이가 영접을 하더니, 그 후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야 공부를 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교회 지휘자가 되었고,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문화사역을 위해서 박사 공부를 하러 간다. 오늘 파송하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만약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나. 어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겠나.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으니까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전교 풀썩었던 아이가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학교 아이들 소원이 그 선생님 반이 되는 것이었다. 복음 깨달은 한 중직자, 한 교사가 너무 소중하지 않은가. 그렇게 복음운동을 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공격했던 그 교회들은 싸그리 없어지고, 시험들어서 무너지고, 우리교회만은 건축도 하고,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필 700평, 800평 되는 땅이 있었는데, 땅 주인이 우리를 보고 자꾸 땅을 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사가 되어졌는데, 사실 우리보다, 후대 램넛트를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기도제목만 장로님에게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하자고 결단하고 10억 넘는 현금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교회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정목사님을 만나서 복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한지 1년 만에 지역의 복지 협회 회장이 되었다. 그런데 306보충대가 나가면서 여기에 리조트 시설이 들어오고, 놀이동산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운동하고 램넛트 살리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담으로 축복을 해 나가시는 것이다. 지역, 후대를 위해 기도 하는데 방향만 하나님께 맞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청소년선학원 교무과장 목사님들은, 언제 청소년선교국장 사표 쓰느냐, 빨리 내가 그 자리 해서 그런 축복 받겠다고 협박하신다. (웃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번에 지역의 동장님을 만나서 그런 정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전도자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또 느껴졌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불신앙하는 사람이 없다. 전에는 좀 불신앙을 했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한다 하면 다 알겠습시다 하게 되었다. 복음과 램네프에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므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 여러분이 환상적인 하모니, 팀워크 이루어서, 참사랑교회가 지역, 민족, 총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중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란다.

## 2. 청지기의 정체성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이다. 최속하지만 시계 자락을 하겠다. 우리 램네프가 생일 선물을 해 준 것이다. 양복도 넥타이도 램네프의 작품이다. 목사님이 귀한 줄 아니까. 시골에서 받은 넥타이를 자랑해서 미안하다. (웃음) 그래도 명품이다. 복음이 귀중하고 목사님이 귀중하니까. 그래서 혹시 청지기 중에 평하고 명해서 혼돈 흑암 공허 속에서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울까?'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한다. 청지기들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불신앙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램네프신학교 앞에 들뿔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초심을 잃었더니 장사가 안 된다. (웃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초심을 잊지 않는 청지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어떤 영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반주하다 말고 성가대 피스를 던져 버리고 나가더라. 그런 주절을 떠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이 재앙의 시대, 복음 실종 시대,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이다. 나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부총회장님 앞에서 아부를 하는 게 아니다. 상임위원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텅 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라.

## 3. 청지기가 받아야 할 응답

(1)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누리시기를 바란다.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다. 나는 위낙 강박 체질이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종교생활을 했었다. 어릴 때부터 노래는 잘 했는데, (웃음) 강화도에서 감리교 교회를 다녔지만, 나에게 구원 상담을 해 주는 교사가 없었다. 나는 10년 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얼굴 보면 성실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다녔는데 확신이 없었다. 학생회장을 했는데도 메시지가 전혀 안 들린다. 일주일동안 교회 갔다오면 생각나는 것이 여학생 보조개밖에 없었다. (웃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유치원 6살짜리 램네프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서 교회를 데리고 왔다. 이 6살짜리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봤더니, 자기는 이미 예수님 마음 속에 계시니까 더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 정도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와 증거 있기를 축원한다. 사람들이 자꾸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 청지기는 완전 복음, 완전 기도,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란다.

(2) 둘째로, 청지기들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으시기 바란다. 나는 청소년 때 복음이 없어서 방황했었다. 내가 그때 복음을 받았으면 불량품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한을 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한다. 우리 집사람이 18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도 아이들에게 답을 못 줬었다. 이것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지금 사역한다. 장위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갔는데, 문제가 터졌다. 학생이 폭행을 했는데, 자꾸 발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을 쫓더니 학교 교문에 빨간 띠커로 교장 실명을 쓰고 욕을 한 것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 아이를 본 것이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다. "선생님, 제가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당들에게 설례임을 하나씩 먹였다. 아이들이 조금씩 설례기 시작했다. (웃음) 다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니?' 모르지. 다 해왕성 명왕성 하늘나라에 있다고 (웃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설례임 하나 먹고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아이들

이 다 잘못했다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주임을 다 찾아가서 사과하는데, 풍랑만만 학교가 잠잠해져 버렸다. 사실 선생님들이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분들을 상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학교에 나와 달라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 후대들이다.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된다. 이미 다 단절되어 있다.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흥은중학교 사역을 들어갔는데, 엄마가 네 번째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것이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가 변하는 것이다. 램네프 사역이다. 그들의 미래를 보라.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렇지만, 복음을 몰랐다면 문제가 되고, 알콜 마약중독이 되고, 자살하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언젠가는 경로당에 들어가서 사탕 하나씩을 드리고 복음을 전했다. 박지만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 아들이라든가 하나님을 모르면 마약을 하고 계속 무너지게 된다. 부모가 다 총 맞고 죽었으니 얼마나 시달리겠나.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더니 13명 중에 11명이 영접했다. 확실히 보니까 다 마음 속에 예수님 계신다고 사탕 오물오물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 다음 주에 가서 확인사살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 '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계속 영접운동 하고 포커스는 램네프에 맞춰야 되겠구나.' 램네프만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비용, 최대효과다. (웃음) 어릴수록 급하다. 우리의 방향이 오직 램네프에 맞춰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참사랑교회는 유럽, 미국교회같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램네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 요즘 나는 램네프 커플들에게 부탁한다. "다섯 이상은 출산해라. 못 기르면 조부모에게 갖다맡겨서라도." (웃음) 무슬림들을 바라. 오천목 목사님 이야기인데, 전도 못 하면 아가라도 낳아야 한다. 할 수 있으면, 램네프 키우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쓰임받아야 한다.

(3) 한 가지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복음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계속 느낀다. 내가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이다. 각뿌체. 이 부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웃음) 창3, 6, 11장, 행13, 16, 19장,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 각인 뿌리 체질이다. 5천 년 동안 토테미즘, 사머니즘으로 완전히 썰어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다. 돌아서면 또 여기 빠진다.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래서 최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항상 훈련 속에 있다. 김동권 목사님도 그렇다. 정은주 목사님은 좀 싫은 표정 하면서 따라다니시지만. (웃음) 가서 훈련받는 것이 나 자신을 유지하는 최고 첩경이다. 만약 훈련 없애고 계속 현장 가면 어떻게 될까?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먼지만 날릴 뿐이다. 언약의 리듬을 계속 타야 한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되는 게 아니다. 성령충만, 훈련 속에 있어야 한다(수4:6). 이번에 우리교회에서 집중 탐합속훈련에 40여 명이 참석했는데, 다 이제 3오늘 가지고 말씀 녹취하고 불타다. 여러분은 당연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싫다고 빼고 그랬는데, 계속 메시지를 듣고 훈련받는다. 아이들이 그렇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항상 무너지고 있다. 새벽기도 해야 한다. 청지기들이 새벽기도 해야 한다. 월요일은 제1남전도회 사회보고 기도하고 특송한다. 매일 그런 식으로 잡아서 하고 있다. 1년 내내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님은 이 교회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다. 아이들도 공부한다고 주 접떨지 말고, (웃음) 말만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것 아닌가. 산업인들을 다 불렀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사업의 문이 열릴 것 아니냐? 성령충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어신다." 행1:8, 오직 능력 힘입어서, 후대 복지사역과 램네프 사역을 위해서, 참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응답 많이 받았지만, 더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 여러분 표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 우리도 보고 따라해야겠다 싶다. 사무엘도 요셉도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 각인을 못 시켰다. 복음을 올바르게 후대에게 심지 않으면 문선명, 김일성 같은 후대가 나온다. 그래서 모든 청지기, 교사 성가대 중직자 제직원들이, 성령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응답을 받는 2016년 되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귀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시는 최목사님과 정목사님, 모든 주의 사자들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 산업인들을 축복하셔서, 이 재앙시대를 살리고,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교회로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목사님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프레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